

전 남

여수 손양원 목사 유적지 종교 테마공원 준공

세계적 종교순례지 만든다

70억원 들여 3년만에...박람회 기간 셔틀버스 운영

여수시가 손양원 목사(1902~1950) 유적지를 세계적 종교순례지로 만든다. 여수시는 1일 오후 신종리 현장에서 손양원 목사 유적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유적지(총면적 8만4580㎡)는 한센병 환자와 애환을 함께한 손 목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순교정신이 함축되어진 종교테마 공원으로 꾸며졌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 지난 2010년 7월 착공에 들어가 3년여 만에 완공했다. 시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가 수 있도록 진입도로(0.8km)를 신설하고

순교기념관 전시실을 리모델링했다. 특히 묘만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 3부자 묘 주변에 관광로를 만들고 나무 등을 식재했다. 시는 이번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박람회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인 성산교회·애양원 역사박물관 등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유적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 창작오페라 '손양원'이 6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술마루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 어느 곳에

서도 볼 수 없는 손양원 목사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 순례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양원 목사는 여수의 나병환자들 수용소인 애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에 대한 구호사업과 전도활동을 펼치다 숨진 순교자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다. 1948년 여순사건 때 동인·동신 두 아들이 좌익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했으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다. 한국전쟁 때에도 피란 요청을 모두 물리치고 한센병 환자와 함께 병원과 교회를 지키다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게 총살당했다. /동부취재본부=임택기자 mtlim@



1일 여수시 오후 신종리에 완공된 '손양원 목사 유적공원'. <여수시 제공>

숨통 틔우기 행사로 공부 스트레스 싸워 함평고 매달 이색행사

함평고등학교가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함께한 가운데 매달 학생들의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이색적인 행사를 갖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고는 최근 학교 잔디광장에서 전교생(353명)과 학부모·교사와 함께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공부와 학교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함평고는 매달 1회씩 학생들의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숨통 틔우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직후에 치러진 '숨통 틔우기 2탄'으로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가족 야외회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고 관계자는 "매달 1회 이상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환기자

보성군 문예회관 기공 150억 들여 2014년 완공

오는 2014년 관람석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보성에 건립된다. 보성군은 지난 30일 보성을 송재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군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부지 1만7655㎡에 지하 1층·지상 3층 500석 규모의 관람석과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을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 군은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낙안읍성 '한국 관광의 별' 예비후보에 우리나라 3대 읍성중 하나인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의 신록이 싱그럽다. 최근 낙안읍성은 아생차체험관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12 한국 관광의 별' 예비 후보에 올랐다. 온라인 투표와 평가·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목포에 전국 최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부주산 근린공원에 5일 개장...전국 대회도 개최

전국 최대규모의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사진)가 목포에 문을 연다. 목포시는 5일 부주산 근린공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암벽 체육 시설인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 센터 개장식을 갖는다. 클라이밍 센터는 총 22억5000만 원을 들여 건립됐으며 지난 3월 대한 산악연맹으로부터 국제대회 규격의 공인을 취득했다. 클라이밍 센터는 실외에 속도벽(3m×15.5m) 2면, 난이도벽(5m×15.5m) 4면, 실내에 난이도벽(12m), 볼더링벽(6m)이 각각 3면과 470석 규모의 관람석과 사무동, 야외무대,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시는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센터 활성화를 위해 5~6월 '제32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겸 '제1회 목포시장애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대회와 아시아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할 선수를 선발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목포대박물관 나주 운곡동 유물展 청동기~고려시대 100여점 전시

목포대학교 박물관(관장 이현중)은 (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과 공동으로 3일부터 9월 21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바위에 새긴 고대인의 상징 언어' 나주 운곡동을 가다'전을 개최한다. 나주 운곡동은 청동기시대 대규모 마을 유적부터 삼국시대 주거지, 토기 가마, 옹관 고분과 고려시대 기와가마 등에 이르는 복합 유적이다. 특히 운곡동 유적 체석장

과 지식묘 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세신 암각화'가 확인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운곡동에서 출토된 100여 점의 유물과 연구성과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목포대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운곡동에 살았던 선사 고대인들의 마을과 생활상, 사후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군 다문화 6가족 선정 친정부도 초청 지원

베트남 신부 6년만에 엄마 만나요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게 소원이었는데, 꿈만 같아요." 해남군 해남읍 학동리 이윤진(26·베트남 출신)씨는 한껏 꿈에 부풀어 있다. 이달 중순이면 베트남 겐지양에 사는 친정부모가 해남군의 초청을 받아 해남에 오기 때문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해남 땅으로 시집온 지 6년. 그동안 한국 국적도 취득해 개명도 하고 아이도 낳매를 낳고 길렀지만 그때마다 그리운 건 친정 엄마였고 고향방 베트남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해남군이 다문화가족 친정부도 초청 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100% 군비(2000만원)를 들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초청부모에 대한 왕복 항공료 지원과 함께 초청가족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며 해남주요 관광지 관람, 한국문화교육 등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달 초 사업홍보와 함께 신청자를 접수, 모두 13가정의 신청자 중 6가정을 선정했다. 군은 국제결혼 이민자 중 결혼기간이 오래되었으나 고향방문과 가족 초청경험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발했다. 군은 올해 사업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해 내년도에 다문화가족 친정부도 초청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구상했다"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체험과 한글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2012 명량역사체험마당

415년전 명량대첩 그날의 함성! 이순신 장군과 민초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재현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 2012.5.5.~8.26. 매주 토·일요일
장소 | 전남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일원
주요행사 | - 저자거리 체험
- 우수영수문장교대식
- 우수영강강술래공연 및 대동한마당 등
주최·주관 | 해남군, (사)우수영강강술래진흥보존회

